

대학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nline Finding Aids of University Archives

하 은 미(Eun-Mi Ha)*

이 수 상(Soo-Sang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4 모범사례의 특징적 요소 |
| 2. 탐색도구의 이론적 배경 | 4. 국내 대학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 서비스 현황조사 |
| 2.1 탐색도구의 개념 | 4.1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
| 2.2 탐색도구의 표준화 | 4.2 부산대학교 대학사자료관 |
| 3. EAD 탐색도구 서비스 모범사례분석 | 4.3 서울대학교 기록관 |
| 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 5. 온라인 탐색도구의 발전방안 |
| 3.2 하버드대학교 기록관 | 6. 결 론 |
| 3.3 예일대학교 기록관 | |

<초 록>

탐색도구는 이용자가 기록물을 접하는 가장 처음 단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탐색도구의 전산화 표준인 EAD는 웹을 통해 이용자가 탐색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관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한다. 이 연구에서는 EAD 탐색도구를 구축한 국내의 기록관에 대해 살펴보고 EAD 탐색도구의 특징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기록관의 탐색도구 서비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학기록물, 탐색도구, 검색도구, EAD

<ABSTRACT>

Finding aids is the first necessary step for users to find records easily. EAD, computerized standardization for finding aids, enables users to access to the finding aids easily and accelerates interoperability between Archives.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omestic and foreign archives where they have built EAD finding aids and to analyze the distinctive feature in the EAD finding aids.

And to review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 current status of finding aids in domestic university archives. An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is presented in this research.

Keywords: university archives, finding aids, EAD,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 유니텍스(주) SI사업부 대리(5zone@paran.com)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slee@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4일

1. 서론

기록물 관리의 목적 중 하나는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로서는, 심지어 기록전문가조차도, 기록관에 소장된 방대한 기록물 가운데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기록물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탐색도구이며 기술이다. 적절한 기술이 다양한 탐색도구를 통해 제공되지 못한다면 비록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있고 잘 보존된 기록물일지라도 이용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무가치한 것이 된다.¹⁾

북미 및 유럽의 기록관은 일찍부터 기술 계층의 전개에 따라 인쇄형의 탐색도구를 생산함으로써 기록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탐색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표준화된 기록정보의 공유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록관간, 국가간, 국제간 기록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및 전산화와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²⁾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ISAD(G)와 ISAAR(CPF) 같은 기록물기술규칙이 개발되었으며 ISAD(G)의 일면으로 기술 표준화 연구 중에 탐색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표준 데이터 구조인 EAD (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의 개발은 기록물 기술 표준화의 주요한 성과이다.

외국에서는 EAD의 개념과 구조는 물론 EAD 탐색도구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탐색도구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 조금씩 기록학 원칙을 반영한 EA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EAD 탐색도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EAD 기반의 탐색도구 구축을 검토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탐색도구 구축사례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탐색도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언하는데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기록관에서 온라인 탐색도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EAD 탐색도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2. 탐색도구의 이론적 배경

2.1 탐색도구의 개념

탐색도구는 'Finding Aids'³⁾의 번역어로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학 사전에는 기록관에서 소장자료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기술과 참조도구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검색도구'⁴⁾

1) 강연아. 2006. 「대학 매뉴스크립트 검색도구 사례분석과 시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
2) 강소연. 2002. 「기록물 검색도구 전산화를 위한 EAD DTD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2.
3) Finding Aids는 탐색도구, 탐색보조도구, 검색보조자료, 검색도구, 기술도구 등 다양하게 지칭된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도구 보다는 탐색도구가 Finding Aids의 원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어 탐색도구라고 지칭하며 정보검색분야에서 탐색도구로 일컬어지는 Search Tool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는 기록의 분류·정리·기술·색인 등과 같이 기록의 조직을 리스트화하거나 기술한 모든 것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기록인협회의 용어사전에서는 기록 자료의 종류가 출판물이나 비출판물이나 전자형태이든 기록관이나 문서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나 기록물에 물리적·지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도구를 일컫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기록관에서 자료나 문서를 물리적·지적·행정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한 기술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기록전문가나 이용자가 자료검색 시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도구를 총칭한다고 한다.⁶⁾

탐색도구는 기록물에 대한 기술을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도구로 기록물은 기록물 군 또는 시리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기록물군이나 시리즈마다 생산 기관의 역사 및 기록물들의 생산유래, 목적, 결과 등이 기입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실리는 도구이다. 도서로 치면 일종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⁷⁾

탐색도구는 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확인하고 기록물에 대한 지적인 통제를 구축하며 이용자의 검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 인벤토리, 색인과 같은 기술매체(descriptive media)로 기록관이 소장 기록물에 대한 관리상 또는 내용상 통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기술 또는 참조수단으로 포괄되는 가장 광범위한 용어이다. 탐색도구는 기록관의 전체

소장물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개별적인 시리즈와 그 시리즈내의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기록물을 찾아보지 않고도 탐색도구를 통해 충분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

2.2 탐색도구의 유형

기록관은 기록물의 생산자, 기록물의 구조와 내용, 주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탐색도구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이용자의 기록물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탐색도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2.1 가이드

가이드(Guide)는 기록관의 복잡한 소장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의 개괄을 제공하는 그룹이나 시리즈 차원의 가장 일반적인 탐색도구이다. 기입단위로써 기록물의 기록물 군(records group) 단계를 취하면서 소장물 사이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지시한다. 즉 각 기록물 군의 내력, 기간, 초록, 내용, 물리적인 형식, 그리고 주요한 하위그룹과 시리즈별 정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록물의 출처, 목적,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되어야 한다.⁸⁾

4) 최정태. 2005. 『기록관리학사전』. 서울: 한울. p.26.

5)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1999.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r Records: Principles and Context. London: ICA. pp.115-116.

6) 박은경. 2002. "EAD를 이용한 기록자료 자동화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2호. pp.93-106.

7) 신동희. 2003. "The Concept of Finding Aid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3권 제1호. pp.93.

2.2.2 레지스터

레지스터(Register)는 아이템, 이름, 사진, 업무에 대한 리스트로 기입(기재사항, 등록)들은 대개 번호순이거나 연대순이다. 다른 명칭으로 등록부라고도 한다.⁹⁾

2.2.3 색인

색인(Index)은 주로 소장된 기록물을 안내하는 가이드나 인벤토리 등의 탐색도구들을 위해 생산되는 중요한 도구로써 기록물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록물의 생산자명, 컬렉션이나 시리즈, 아이탬의 제목 또는 시리즈 기술, 기관연혁과 개인의 전기를 기입어로 취하고 때로는 주제기술어도 첨부한다. 이러한 기입사항들은 기록관에 의해 정해진 표준과 규칙에 따라 알파벳순(가나다순)으로 작성되고 가능하다면 원하는 아이탬으로 직접 안내하기보다는 인벤토리처럼 구조적인 탐색도구 내의 관련 페이지로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¹⁰⁾

2.2.4 인벤토리

인벤토리(Inventory)는 가이드보다 더 상세한 설명으로 기록물의 계층적 수준을 설명하여 기록물의 시리즈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탐색도구이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탐색도구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출

처를 기준으로 기록물을 적절한 시리즈와 하위 시리즈로 분류함으로써 기록물이 생산되고 활동하는 완전한 상황관계를 보여준다. 대개 기록물의 기술사항은 물론 기술되는 기록물 조직의 행정적 내력을 포함한다. 인벤토리는 전체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서문(Preface) ② 도입(Introduction) ③ 기관 연혁·개인의 전기(Agency History·Biography) ④ 범위와 내용주기(Scope and Contents Note) ⑤ 시리즈 기술(Series Descriptions) ⑥ 컨테이너 리스트(Container Lists) ⑦ 색인(Index)과 부록(Appendix)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2.2.5 전거시스템

전거시스템(Authority System)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실체들에 대한 기술과는 별개로 시리즈에 대한 기술을 유지한 다음, 생산자 정보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복잡적이고 다중적인 출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생산자 정보를 기록물 기술과 분리한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시리즈 기술, 기록물 생산자·기관연혁 기술, 연결 정보 그리고 집합적인 탐색도구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¹²⁾

2.3 탐색도구의 표준화

탐색도구가 생산되기 이전에 정리와 기술단

8) 이숙희, 2002. "기록관리기관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기초 연구." 『제2회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술대회논문집』, p.63.
9) Edgecombe, Jennifer, 1987. 『Finding Aids』. In: Ellis, Judith, ed. Keeping Archives Melbourn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
10) 이숙희, 앞의 논문. p.65.
11) Mi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pp.147-157.
12) Miller, Fredric M. 앞의 책. pp.157-167.

계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기록물 기술 표준의 범주는 정보 시스템 표준, 데이터 구조 표준, 데이터 내용 표준, 데이터 값 표준¹³⁾ 4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기록물 탐색도구를 위한 기술포맷이자 데이터 구조의 표준인 EAD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EAD

(1) EAD 개요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는 평면적인 구조를 가져 기록물 탐색도구의 계층적인 기술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USMARC AM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인 ISAD(G)의 기술정보를 교환하며 다계층 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발전한 기록물 탐색도구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이다. EAD 개발자인 Pitty가 제시한 탐색도구의 전산화 표준의 다섯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 검색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방대하지만 상호관계가 있는 기술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술계층간에 존재하는 계층구조적인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계층구조 상에 있는 하나의 계층에서 또 다른 하나의 계층으로 상속될 만한 기술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탐색 시 하나의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

다. 다섯째, 정보 요소에 기반한 색인작업과 검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¹⁴⁾

이런 탐색도구 전산화 표준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EAD의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XML 규약을 따르는 기록물 탐색도구에 관한 문서형정의(DTD)이다. 둘째, 웹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셋째, EAD는 기록물 탐색도구의 구조화와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 구조 표준이다. 그리고 탐색도구 기술포맷 표준으로써 EAD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인 표준으로 탐색도구의 기술요소와 구조를 정확히 표현한다. 둘째, 웹상에서 기록정보의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객체의 삽입과 링크가 용이하다. 셋째, ISAD(G)와 호환이 되어 다계층 기술로 기록물의 원칙을 반영한다. 이로써 우리는 EAD가 기록물 기술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록물 탐색도구의 전산화 표준이며 인코딩 표준임을 알 수 있다.

(2) EAD 구성

1995년부터 EAD가 논의되어 1998년에 EAD 1.0 버전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 EAD 2002 버전이 발표되었다. LC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 사이트¹⁵⁾에서 EAD 1.0 버전은 EAD DTD, EAD 태그집(Tag Library), EAD 적용지침

13) 정보시스템 표준은 한 개별 기록관이나 하나의 기록관간 네트워크에서 기술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넓은 차원에서 운용되는 표준이다. 데이터 구조 표준은 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요소를 정의하는 표준으로 별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성이 줄고 데이터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로 USMARC AMC, EAD DTD가 있다. 데이터 내용 표준은 데이터 구조 표준에서 정의한 각 요소 안에 정보를 입력하는 규칙을 제공,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인다. 예로 ISAD(G)가 있다. 데이터 값 표준은 용어, 이름, 문자·숫자코드 체계에 관한 목록과 표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역시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인다. 예로 ISAAR(CPF)가 있다[강소연, 앞의 논문, p.38].

14) 강소연, 앞의 논문, p.40.

15) LC의 EAD 웹사이트 <<http://www.loc.gov/ead/ead.html>>.

(Application Guidelines)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EAD 2002 버전은 EAD DTD, EAD 스키마 그리고 EAD 태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자료로 EAD 설명서(Cookbook)가 있는데 EAD 태그집과 EAD 적용지침의 확장된 기능으로 EAD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EAD 태그집과 적용지침, 설명서는 모두 EAD DTD를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AD DTD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탐색도구 자체인 표제, 생산자, 날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기록물 본문(컬렉션, 기록물군,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다시 <eadheader>와 <frontmatter>로 분리되며, 기록물 집합과 구성 단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두 번째 부분은 <archdesc>요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모두 세 가지의 상위 레벨 요소들은 최상위 요소인 <ead> 안에 포함된다. 즉 EAD DTD는 기본적으로 <ead>라는 최상위 요소 아래 <eadheader>, <frontmatter>, <archdesc>의 세 가지 상위 레벨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 아래 각각의 하위요소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트리구조의 계층적인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archdesc> 요소는 기록물 탐색도구의 전산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계층 기술 구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 용자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하위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archdesc>를 입력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필수속성으로

규정된 레벨속성을 이용하여 컬렉션, 시리즈 등 속성 값을 입력하고 기술하고 있는 기록물 집합의 최상위 계층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식별요소인 <did>를 입력함으로써 기록물 집합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전달한다.

EAD DTD는 모두 145개의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단지 몇 개만을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었다. 필수요소의 선정은 기술요소의 기록관간, 국가 내 혹은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EAD 적용지침¹⁶⁾에 따르면 EAD는 품, 컬렉션, 시리즈 단위의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필수요소를 선정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EAD DTD의 한 부분으로 EAD 스키마를 추가하였다. EAD 스키마는 Relax NG 스키마(RNG)와 W3C 스키마(XSD)로 표현되며 유용성(Validate) 및 데이터 타입 검사가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프로그램의 구조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EAD DTD의 모든 요소는 EAD 태그집에서 설명되며 여기에는 기록관에서 온라인 탐색도구의 내용을 설계할 때 기록전문가가 어떤 요소와 속성을 취사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참고도구로 사용된다.

EAD 적용지침은 기록전문가가 기록관의 탐색도구를 인코딩할 때 적당하고 효과적으로 EAD DTD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매뉴얼 즉 실무지침서이다.

EAD 설명서는 EAD 적용을 위한 매우 실

16) EAD 적용지침 <<http://www.loc.gov/ead/ag/aghomes.html>>.

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마크업 선정은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이동, 종합 목록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 다른 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재이용, 인벤토리 안의 하이퍼-네비게이션, 웹과 프린트 출력 등 여러 상이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2.2 마크업 언어

기록물은 기술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가 필요하다. SGML은 문서처리의 장점 때문에 다른 마크업 언어들 가운데에서 EAD 코드언어로 선정되었다. SGML은 문서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규칙으로서 문서의 검색, 접근방법, 표현의 구조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록물 탐색도구의 전산화 표준을 개발하는데 SGML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GML은 MARC와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독립적인, 공적인 영역에 속한 표준이었다. 둘째, SGML은 MARC와 달리 여러 레벨에서 상호 관련된 계층 정보를 수용하였다. 셋째, SGML 문서에는 길이의 제한이 없었다. 넷째, SGML의 시장은 MARC보다 훨씬 컸다. 즉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서술식 기술과 다계층 기술 등 기록물 기술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잡

하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하나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SGML의 문제점으로 인해 SAA의 EAD Working Group에서는 XML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1998년 배포된 1.0 버전과 2002년 배포된 2002 버전의 EAD DTD가 SGML과 XML에 모두 호환하도록 하였다.¹⁷⁾ DTD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는 모든 문서에 적용하는 마크업 선언들의 집합으로 XML 문서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내포한다.

XML은 HTML과 SGML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웹 상에서 구조화된 기록물을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한 마크업 언어이다. 그리고 구조화된 기록물을 정의하여 태그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는 SGML의 장점과 웹상에서 손쉽게 하이퍼미디어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는 HTML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한 웹 표준 기록물 포맷이다.¹⁸⁾ 현재 전 세계적으로 SGML보다 간편한 형식인 XML이 주목받게 되었고 XML로 인코드된 EAD 탐색도구를 구축하고 있다.

3. EAD 탐색도구 서비스 모범사례 분석

국내에서 EAD 탐색도구를 개발한 곳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하 사료관)이 유

17) Pitty, Daniel, V. 1997.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The Development of an Encoding Standard for Archival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0(3). pp.275-278.

18) 임선화. 2002. "전자문서포맷표준에 기반한 기록물관리시스템." 『제2회 명지대학교 기록과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술대회논문집』. pp.124-143.

일하다. 사료관에서는 『기록물관리시스템개발 요구서』를 발간하고, 여기에 최적으로 부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EAD 탐색도구 생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작업을 거쳤으며 그 후 사료관리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료관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의 대학기록관은 주로 도서관 종합목록과 연계하여 EAD 탐색도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대상인면서 EAD 탐색도구의 특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기록관을 선정하였다. 위 사례분석의 목적은 국내 대학기록관의 EAD 탐색도구 구축계획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외국에서는 EAD 탐색도구의 특성이 제일 잘 드러나며 종합목록과 연계되어 EAD 탐색도구를 구축한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버드대의 경우 EAD 구현사례, 특히 실무에서의 응용을 위하여 상세한 실무지침을 개발하였다. 이 실무지침은 다른 기록관에서도 적용되며 국외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되고 있다.

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3.1.1 일반 사항

사료관은 사료관리시스템의 개발방향에 대한 보고서¹⁹⁾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EAD를 적용하여 기록물 기술의 특성인 계층적인 속성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사료관의 사료관리시스템의 개발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은 사료관뿐만 아니라 장차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기록관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록관과 연결할 수 있고 범용성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출처존중, 계층적 관리, 집합적 관리 등 기록관의 기본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은 문자자료, 시청각매체, 물건, 지도, 마이크로자료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에 대해 EAD 형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시스템은 완벽한 전거관리 기능을 갖추어 관련 파일간의 레코드를 연결하는 기능, 표목의 적합성 검증 기능, 전체적인 변경사항을 처리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EAD 형식으로 된 서지레코드로부터 전거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일괄적으로 입력되는 전거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²⁰⁾

사료관의 시스템은 수집시스템, 분류·기술시스템, 전거시스템, 검색시스템, 전문제공시스템, 열람·대출·이용자관리시스템, 통계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사료관의 분류·기술시스템은 일관성 있는 기술과 다양한 탐색도구 생산을 보장하며, 사료관의 소장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아울러 표준화된 기술규칙에 근거한 분류·기술시스템은 국내의 사료관이나 기록관 넓게는 세계적인 기록관간의 기록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축되었다.

사료관리시스템에서는 사료의 기술계층을 5개 계층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하위의 계층은 아이템에 해당하는 '사료건', 그 다음 계층은 파일에 해당하는 '사료

19) 김익환 외. 2002. 「민주화운동 사료관리시스템 개발방향 및 전략」,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 김익환 외. 앞의 보고서. pp.1-2.

철', 시리즈에 해당하는 '사료계열', 하위군(sub group)에 해당하는 '사료하위군', 최상위 계층은 기록물 군(record group)에 해당하는 '사료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별 기술순서는 일차적으로 사료건을 등록한다. 이것은 출처파일과 연계되면 다시 분류체계에 따른 상위 코드를 부여받는 과정을 거친 후 사료건들이 그룹핑되면서 사료철, 사료계열이 생성되고 다시 사료 하위군과 사료군을 이루는 전형적인 컬렉션 정리체계가 형성된다. 각각의 기술레코드들은 계층별 출처레코드와 연계된다.

3.1.2 탐색도구 구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DB 검색시스템²¹⁾'은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²²⁾' 및 '국가지식포털²³⁾'과도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PDF를 통해 사료관의 각종 원문 및 사진 이미지 등이 제공되며 사진 필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장 및 복사, 화면 캡처 등을 할 수 없도록 DRM(Digital Right Management)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DB 검색시스템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소장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종이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문서검색'이고, 둘째는 사진 필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진검색'이며, 셋째는 구축된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온라인 '전시관'이다.

문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이다. 키워드 검색은 단순검색과 제목, 사료번호, 생산자, 기증자에 대한 검색항목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상세검색으로 나뉜다. 그리고 불연산검색(and, or, not)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그림 1>과 같이 디렉토리 검색으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해당 사료들을 년대-년도-유형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사료를 검색한 후 그 검색결과화면의 상세정보보기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ISAD(G)를 적용한 식별영역, 배경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의 정보가 나타나고 사료전거연결정보에서 전거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사진 한 장에 대해 각각 메타데이터와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데 사진검색은 기본분류검색, 상세검색, 다원분류검색으로 제공된다. 기본분류검색은 일종의 디렉토리 검색으로 모든 사진을 주제분류하여 이를 사진그룹(G:Group), 사진계열(S:Series), 사진철(F:File), 사진건(I:Item)으로 계층화하여 제공한다. 주제분류는 한국현대사를 연대기적으로 구분하여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대분류로 설정하였다. 상세검색은 문서검색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필요한 키워드나 주제어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단체, 인물, 용어에 대한 전거정보검색도 지원한다. 다원분류검색은 기본분류의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사진에 주어진 18개 부문운동을 계층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21)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DB 검색시스템 웹페이지 <http://saryo.kdemocracy.or.kr/kh_pic/main.jsp>.
 2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웹페이지 <www.koreanhistory.or.kr>.
 23) 국가지식포털 웹페이지 <<http://www.knowledge.go.kr/index.jsp>>.



<그림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디렉토리 검색화면



<그림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검색결과화면

사진 속에 포함된 사건, 단체, 인물, 지역, 장소 등에 대해서도 계층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3.1.3 EAD 적용

사료관에서는 마크업 언어인 XML과 확장

성 스타일시트 언어인 XSL을 이용하여 EAD 탐색도구를 생산한다. EAD 인코딩은 입력요소의 선정과 기술규칙, 전거시스템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사료관의 사료관리시스템의 특징은 '행정연혁·개인이력'을 기술요소에서 제외

한 것이다. 이 요소를 전거레코드에 기술함으로써 전거레코드와 기술레코드의 중복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행정연혁·개인이력 부분은 전거파일에 별도로 구축하여 검색 시 연계되는 기술구조를 유지한다. 수집·등록·기술 등 각 업무 흐름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료의 탐색도구로 이용한다. 전거레코드의 기술요소는 ISAAR(CPF)를 준용하고 입력형식은 EAC(Encoded Archival Context)²⁴⁾를 따른다.

사료관 시스템의 기술요소는 ISAD(G)에서 제안하고 있는 7개 영역의 모든 기술요소를 사용되 배경영역의 ‘행정연혁·개인이력’요소를 제외한 25개의 요소를 기본요소로 한다. 그리고 기본요소들은 사료계층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그리고 EAD 요소를 토대로 필요할 때 요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료량이 적어서 계층별 분류가 불가능한 사료의 경우에는 기술요소중 공통적인 필수요소²⁵⁾만 선정하여 적용한다.

3.2 하버드대학교 기록관

3.2.1 일반 사항

하버드대의 매뉴스크립트는 학내 도서를 중심으로 한 종합목록인 온라인 목록(HOLLIS), 시각 기록물 검색시스템인 VIA(Visual Information

Access) 그리고 기록물 검색 시스템인 OASIS(Online Archival Search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3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VIA는 하버드대의 시각기록물 온라인목록으로 건물, 풍경 그리고 학생, 교수, 직원의 사진을 포함하는 하버드대 기록물에 대한 이미지와 서지사항을 제공한다. HOLLIS에는 1천 5백만여 권의 도서, 저널, 매뉴스크립트, 정부 문서, 지도, 마이크로폼, 악보, 시청각자료 및 데이터 파일에 대한 9백만이 넘는 기록물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버드대 전체 기록물의 65%²⁶⁾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MARC 레코드를 적용한 간략한 기록물 정보만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OASIS의 목록은 아직 단지 1% 미만의 기록물만 검색할 수 있는 대신, 기록물의 특성을 살린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²⁷⁾ OASIS는 3,043개의 컬렉션 수준의 EAD 탐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대에서는 OASIS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을 HOLLIS에서 검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HOLLIS에서 찾은 기록물이 OASIS에도 존재할 경우 특정항목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두 기록물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²⁸⁾

3.2.2 탐색도구 구조

HOLLIS의 경우에는 저자, 서명, 번역물 등의 제목, 주제명, 시리즈명, 출판사, 출판장소,

24) EAC는 개인, 가문, 단체명의 기술을 위한 실험적(prototype)표준이다. EAC는 기록 생산자에 관한 기술을 XML 형식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표준을 설계 및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김익한 외, 앞의 보고서, p.54].

25)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기술계층,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생산자명, 범위와 내용, 정리체계, 언어, 주기, 기술일자.

26) 나머지 기록물(35%)은 현재 구축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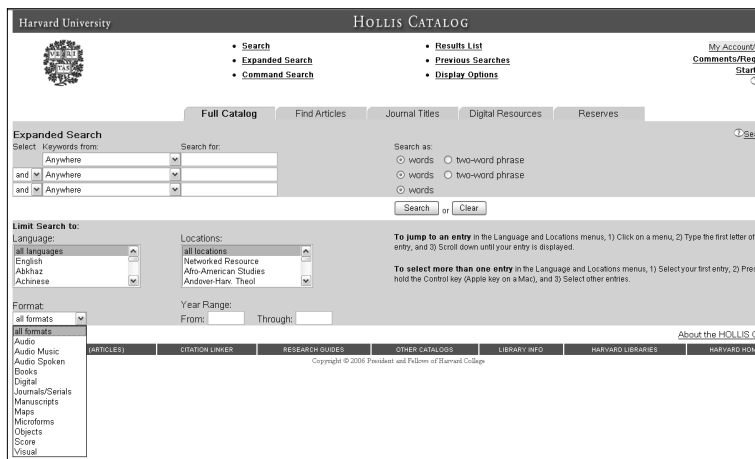
27) 하버드대학교 기록관 웹페이지 <http://hul.harvard.edu/huarc/access_tools.shtml>.

28) 강연아, 앞의 논문,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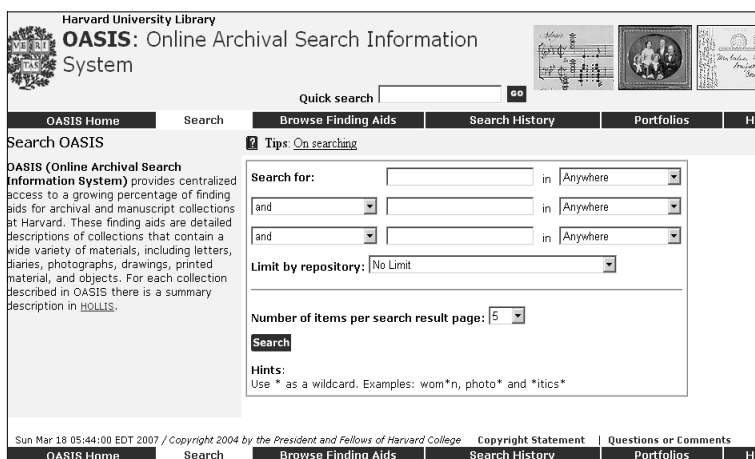
형태 및 장르, 모든 분류번호, 미의회도서관(LC) 분류번호, Widener 분류번호, 기타 분류번호, HOLLIS번호, 구(舊) HOLLIS번호 항목에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제한자로는 언어, 위치, 형태, 년도의 4가지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HOLLIS에서는 기록물만을 위한 검색항목은 찾을 수 없으나, '기타 분류번호' 항목이 있어 기록관에서 부여된 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제한자 중 '형태'를 매뉴스크립트로 지정하면 매뉴스크립트만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3〉의 검색화면에서는 참여기록관에서 생산한 EAD 탐색도구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검색어로는 보통 키워드와 이름, 지명, 주제에 관련한 단어와 구문을 입력할 수 있고 날짜와 기록관을 제한하여 검색하는 기능도 있다.



〈그림 3〉 하버드대학교 온라인 목록 HOLLIS 검색화면



〈그림 4〉 하버드대학교 기록물 검색시스템 OASIS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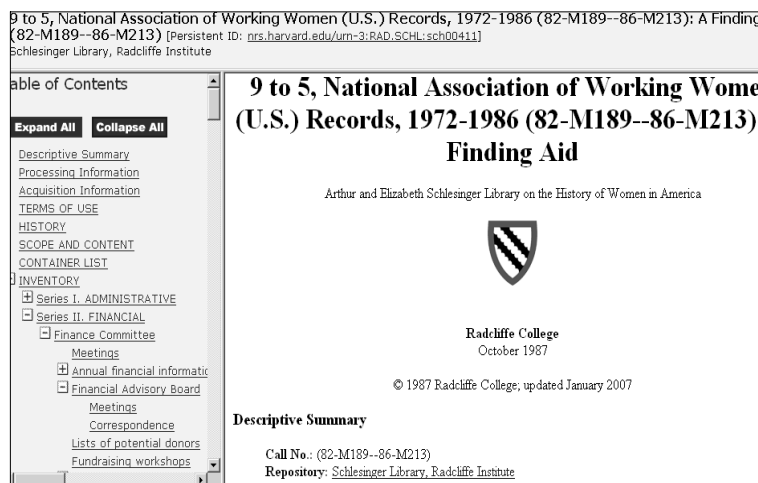
〈그림 4〉와 같이 기록물만을 검색대상으로 하는 OASIS에서는 인명, 조직명, 주제와 장르, 지명, 일자, 기록관 분류번호, 소장 기록관, 기록물 군의 내용물 목록에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기록물이 위치한 기록관만을 검색제한자로 제공한다. 그리고 불연산 검색과 인접검색을 지원한다.

OASIS의 웹페이지에서 링크된 개별 기록관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표제의 알파벳 순 리스트를 브라우징 할 수 있다. OASIS에서는 문구와 키워드 검색기능이 있으며 낱자나 낱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색인어를 추출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탐색도구에 대해 생소한 이용자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버드대의 소장 기록물에 대한 개요, OASIS에 대한 개요 및 접근방법, 탐색도구에 대한 개요 및 탐색도구 화면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세한 검색방법, 저장 및 출력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이용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는 OASIS에서 검색한 기록물의 EAD 탐색도구 화면이다. 화면에 두 개의 검색창이 나타난다. 왼쪽의 네비게이터(Navigator) 창은 오른쪽 내용(Content) 창의 목차기능과 결과물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네비게이터 창에서는 문서 사이의 이동을 쉽게 하고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고, 내용의 하이퍼텍스트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오른쪽 내용 창에 나타난 기록물은 컬렉션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EAD 탐색도구를 살펴보면 다계층의 기술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리즈 단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단위까지 전개하고 있는데, 따라서 품 - 시리즈 - 파일 -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기록물의 계층별 기술을 표현한다. 시리즈 리스트(혹은 시리즈 기술)나 컨테이너 리스트를 기술요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기입하고 있다. 또한 시리즈 기술에서는 시리즈에 관해 개괄적인 정보를 제



〈그림 5〉 하버드대학교 기록물 검색시스템 OASIS 검색결과화면

공하고 컨테이너 리스트에서는 폴더나 박스단위의 표제와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템 계층을 기술할 때에는 이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여 해당 아이템의 디지털 변환문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비게이션 기능과 더불어 EAD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이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하이퍼링크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면서 더 세분된 정보와 원문에 접근할 수 있다.

3.2.3 EAD 적용

하버드대는 EAD를 이용하여 탐색도구를 생산한다. 탐색도구의 인코딩은 기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기록관의 직원이 수행하며, 인코딩이 완성되면 OASIS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인 OIS(the Office for Information System)로 보내서 OASIS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게 한다.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EAD의 일정한 기술요소들을 색인어로 추출하였는데 그 색인어의 구성은 이름(개인명, 단체명, 가문명, 기관명, 지역명)과 표제, 주제와 장르(범위와 내용, 행정이력·개인전기, 직업, 장르와 유형, 주제), 기록관명, 청구번호와 등록번호, 날짜(해당 단위의 날짜, 컬렉션 자료의 포괄날짜, 입수날짜), 컨테이너 리스트 등을 색인어로 추출한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에서 EA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록관들의 컬렉션에 관한 EAD 탐색도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름, 표제, 장르 등 색인어로 추출한 정보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 검색할 수 있다.

실무지침에 나타난 필수요소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탐색도구에 대한 서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관의 획일적인 기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요소인 <eadheader>와 탐색도구를 웹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공식적인 표제면을 작성하기 위한 요소인 <frontmatter> 요소를 필수요소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did>요소를 필수요소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다계층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요소들은 모든 사례에서 필수요소로 선정하였다. 기록물의 최상위 계층을 확인하기 위한 <archdesc>의 레벨속성, 하위계층을 기술하기 위한 <dsc> 요소와 TYPE 속성, 시리즈나 하위시리즈, 파일, 아이тем 등 계층별로 나누어 기술하기 위해 <c>요소와 레벨 속성 등이 필수적인 요소에 포함되었다.

2005년부터 OASIS는 XML로 인코딩된 EAD 탐색도구를 구축하고 있으며 EAD 1.0 버전을 EAD 2002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하였다. 2007년에 기존의 EAD 1.0 버전을 바탕으로 한 실무지침을 EAD 2002 버전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Harvard-Google Project로 인해 OASIS에 구축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포털사이트인 Google에서 검색이 된다.

3.3 예일대학교 기록관

3.2.1 일반 사항

예일대 대학기록관은 XML로 인코딩된 EAD 탐색도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Finding Aid Database'를 통해 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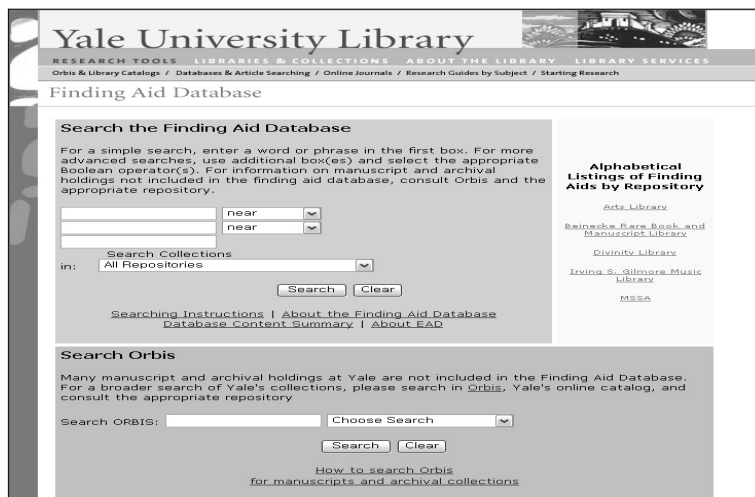
현재 예일대 기록관인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²⁹⁾에는 총 2,400개의 컬렉션 수준으로 기술된 기록물이 존재하는데 그 중 35%가 온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탐색도구 중 67개의 컬렉션 및 기록물 군에 대해 EAD 탐색도구가 생산되었다. EAD 탐색도구로 구축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해서도 컬렉션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컬렉션 개관, 생산 기관의 역사, 컨테이너리스트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예일대 기록관은 시각 기록물에 대해 'Digital Images Database'를 구축하여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예일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록물에 관한 MARC 목록 레코드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온라인 종합목록 시스템인 'Orbis'와 기록물에 대한 종합검색이 가능하며 EAD 탐색도구를 제공하는 'Finding Aid Database'이다.

3.2.2 탐색도구 구조

Finding Aid Database에서 기록물 검색방법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키워드 검색과 문구 검색이 있으며, 불연산검색과 두 단어 사이가 5단어를 넘지 않는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접검색(near)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장 기록관별로 제한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Finding Aid Database의 검색방법, 검색구문의 입력 예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도움말 페이지가 있다.

예일대에서 EAD 탐색도구에 접근하는 방법은 첫째, 온라인 종합목록 시스템인 'Orbis'에서 MARC의 856 태그를 이용하여 Finding Aid Database에 존재하는 기록물 탐색도구의 URL을 기술하는 하이퍼링크 방법과 둘째, Finding Aid Database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 셋째, 각 도서관 및 기록관의 웹사이트에서 EAD 탐색도구를 링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6> 예일대학교 Finding Aid Database 검색화면

29) 예일대 기록관 웹페이지 <<http://www.library.yale.edu/mssa>>. [cited 2006.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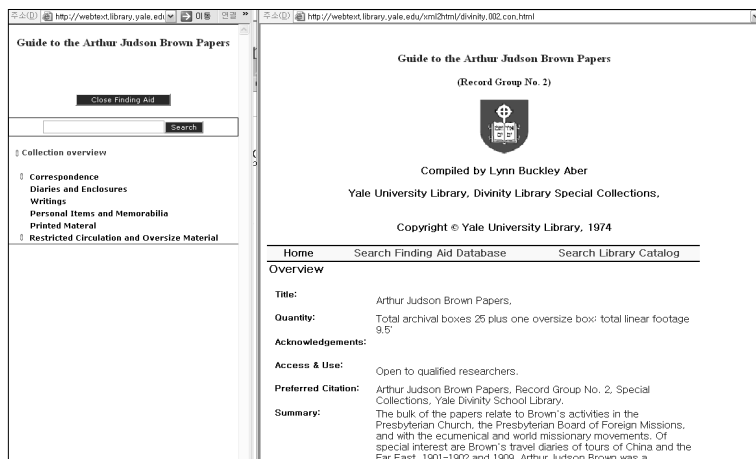
〈그림 7〉 예일대학교 온라인 목록 Orbis 검색결과화면

〈그림 7〉의 Orbis에서 'Available Online: Finding Aid'를 클릭하면 Finding aid Database로 이동하여 〈그림 8〉과 같은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은 Finding Aid Database에서 검색한 기록물의 EAD 탐색도구 화면이다. 화면에 두 개의 검색창이 나타난다. 왼쪽의 네비게

이터(Navigator)창은 오른쪽 내용(Content)창의 목차기능과 결과물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네비게이터 창에서는 문서 사이의 이동을 쉽게 하고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고, 내용의 하이퍼텍스트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네비게이터 창에서 단어나 문구로 다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 예일대학교 Finding Aid Database 검색결과화면

검색 시 해당 내용 페이지로 바로 찾아간다. 오른쪽 내용 창에 나타난 기록물은 컬렉션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컬렉션 개관, 생산기관의 역사, 박스리스트(box list)를 나타내주고 있다.

3.2.3 EAD 적용

예일대의 EAD 탐색도구 기술요소는 EAD 태그집의 135개의 요소 중 20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생산자명, 표제, 규모, 요약, 소장기록 관명, 기술계층, 참조코드, 기록물 이력, 행정연혁, 아키비스트 주기, 관련 자료의 위치, 소장기록이용 및 열람조건, 출처, 기록물 군에 포함되는 시리즈, 저자의 전기, 기록의 범위, 시리즈 기술과 폴더리스트 요소 등에 해당되는 EAD 태그를 적용한다.

예일대 기록관인 Manuscripts and Archives, Yale University Library에서는 4,300여명의 홀로코스트(holocost) 생존자로부터 녹화된 10,000여 개의 증언비디오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 자료에 대해 250여 개의 XML로 인코딩된 EAD 탐색도구를 구축하고 있으며 증언한 생존자에 대해 EAC³⁰⁾로 입력된 전자파일을 구축하고 있다.³¹⁾

Finding aid Database에 구축된 기록물들은 Archive Grid³²⁾와 연계되어 검색된다. 또한 EAD 탐색도구를 구축한 다른 기록관인 American In-

stitute of Physics Niels Bohr Library, Cornell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OAC, LC, University of Michigan, Bentley Historical Library와 협력관계에 있어 기록정보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3.4 모범사례의 특징적 요소

각 모범사례를 살펴본 결과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연구에 의해 EAD 탐색도구 구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버드대는 1995년도부터 온라인 탐색도구에 대한 프로젝트(DFAP)를 시행하여 탐색도구에 대해 연구하였고 사료관도 2002년부터 EAD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04년에 EAD를 적용한 사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이르렀다.

그리고 탐색도구에 대한 정책수립 시 기록물 기술에 있어서도 컬렉션에 대해 어떤 정보를 기술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기술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술사항을 규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EAD 탐색도구에서는 이용자에게 상세한 기술정보와 함께 원문본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EAD 탐색도구의 구축에 앞서 기록물의 디지털 변환의 범위와 우선순위, 디지털 기록물의 디스플레이 방식 등 세부적인 디지털화의 방식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디지털 변환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기

30) 예일대는 EAC 공식관리기관이다 <<http://www.library.yale.edu/eac/>>.

31) 홀로코스트 생존자 증언물 탐색도구에 대한 보고서(2004, 3) <<http://www.library.yale.edu/scopa/grants/2003fin3.pdf>>.

32) Archive Grid는 연구도서관 그룹(Research Library Group, RLG)의 기록물 탐색도구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기록물에 대한 상세한 탐색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웹을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탐색도구의 소재를 파악하고 탐색도구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Archive Grid는 현재 150개 이상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EAD 탐색도구를 제공한다.

록관의 실무지침이나 매뉴얼에 명기하여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모범사례의 각 기록관에서는 EAD 탐색도구의 작성에 앞서 어떤 기술요소를 어떤 원칙에 따라 필수요소로 추출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이것을 실무지침에 반영하였다.

사료관의 경우 사료관리 업무편람과 내부 보고서가 실무지침을 대신하며 필수요소 선정은 EAD 1.0 버전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2 버전에서 추가된 일부의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내 다른 기록관에서도 적용되는 하버드대의 실무지침에 담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필수요소의 선정과 다계층 기술의 구현이다. 필수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종류 및 컬렉션의 형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술정보 교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와 함께, 이용자의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정보를 필수적인 요소로 선정하여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은 EAD 탐색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필수요소 선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계층 기술의 반영과 기술정보 교환의 상호운용성이다. 실무지침을 개발한 이유는 EAD 탐색도구의 생산에 기본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참여 기록관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EAD 탐색도구를 구축한 참여 기록관 간의 상호운용성을 살펴보면 사료관은 국내에서 EAD를 적용한 유일한 기록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록관과의 상호운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단 EAD를 더블링크어로 매핑하여 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서울대 기록관과 기술정보를 교환

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경우를 보면 학내의 참여 기록관간, 그리고 다른 기록관과 상호운용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기록관에서도 EAD 탐색도구를 구축하기 위해 상세한 실무지침을 개발하고 필수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필수요소의 기입방식을 명기함으로써 기 균 일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내 대학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 서비스 현황조사

최근 기록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학기록관이 생기고 있고, 도서관과 연계하여 DB를 구축하거나 기록관 자체에서 DB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에게 기록물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50여개의 대학기록관이 운영³³⁾되고 있지만 대학기록관 웹사이트에서 대학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곳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이다. 명지대는 대학사료실 웹페이지에서 기록물 탐색도구를 제공하며 서울대의 경우 다양한 학내의 자원을 포괄하는 '전자도서관'의 통합검색을 통해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고, 부산대와 성균관대³⁴⁾는 대학도서관 종합 목록과 대학기록관의 웹 사이트 양쪽에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다음은 대학기록관 웹사이트에서 탐색도구를 제공하는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3) 배순자. 2005. "국내대학기록물 관리의 현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p.62.

34) 성균관대는 부산대와 비슷한 유형이므로 생략한다.

4.1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4.1.1 일반적 현황

대학사료실³⁵⁾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목록을 생산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웹 기반의 사료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기록물 등록, 관리, 검색, 전거관리, 분류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대학사료실에서 기록물은 ISAD(G)와 ISAAR(CPF)를 적용한다.

4.1.2 탐색도구 현황

사료관리시스템에서는 분류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지원한다. 분류검색의 경우 출처별,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다³⁶⁾. 출처별 분류는 대학, 대

학원, 법인, 대학부속·부설기구, 연구소, 학생·교수·직원·동문, 역사기록물로 나뉘고, 유형별로는 문서, 간행물류, 사진·필름, 포스터, 녹음, 동영상류, 박물관류로 나뉘어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9〉과 같이 검색결과 화면에는 기본정보영역, 내용구조영역, 열람이용영역, 주기영역, 사료전거정보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기본정보영역은 기술단위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표현하는 영역으로, 표제, 부표제, 등록번호, 분류번호, 매체형태, 생산기관, 생산일자, 사업일자, 분량, 기증자로 기술요소가 나누어진다. 내용구조영역은 범위, 내용, 평가와 같은 기술단위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다루는 영역으로 법적 가치, 사료적 가치, 정보적 가치, 상태평가, 보존연한, 보존연한 수정, 보존연한 수정사유, 보존처리 내용으로 기술요소가 나누



〈그림 9〉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검색결과화면

35) 명지대 대학사료실 웹페이지 <<http://www.archives.mju.ac.kr>>.

36) 분류검색화면에 시리즈별 검색 항목이 있지만 대학사료실에서는 시리즈 기술을 하지 않아 시리즈별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다.

어진다. 열람이용영역은 실제적인 이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공개여부, 비밀기록여부, 언어에 대한 기술요소를 사용한다. 주기영역은 다른 영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보제공영역으로 명시대 사료관리시스템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료전자정보영역의 경우 전거분류와 전거명에 대한 기술요소를 포함한다.

4.2 부산대학교 대학사자료관

4.2.1 일반 현황

대학사자료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일부는 도서관의 종합목록에서 검색되고 있으며 대학사자료관에서는 사진 및 수집자료 일부를 DB로 구축을 하여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 포맷은 KORMARC 비도서자료용 KSC5969을 이용하고 KORMARC 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을 적용하였다.

4.2.2 탐색도구 현황

도서관 종합목록에서 대학사자료관에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명, 기증처, 기증자, 발행처, 자료유형과 같은 서지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기록물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면 사진기록물에 대한 기술요소는 자료유형, 단체저자명, 출판사, 서명·저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일반주기, 촬영녹음일시와 장소, 이용이 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원본주기, 비통제주제어이다. 그러나 사진기록물 외의 기록물은 대학사자료관에서 제공하는 ‘소장자료검색’에서 목록리스트로 검색된다.

〈그림 11〉과 같이 대학사자료관의 기록물 검색결과 소장 기록물에 대해 기증자, 기증처, 자료명, 생산처, 자료구분, 발행년도, 등록번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림 10〉 부산대학교 도서관 종합목록 검색화면



〈그림 11〉 부산대학교 대학사자료관 검색화면

4.3 서울대학교 기록관

4.3.1 일반 현황

기록관³⁷⁾은 ‘학교사 관련 기록’과 ‘학생운동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행정 기록물의 경우 자료관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매뉴스크립트의 경우는 전자도서관에 구축된 종합목록을 연계하여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는 종합학술정보시스템 및 학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위해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학내 학술자원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와 학내 디지털 콘텐츠 학술정보의 연동 및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기록관 소장기록물이 디지털화 되었다.

4.3.2 탐색도구 현황

〈그림 12〉를 살펴보면 기록관에서는 소장 매뉴스크립트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뉴스크립트의 특성을 살린 상세 기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매뉴스크립트 기술을 위하여 기록관에서 발간한 ‘서울대학교 기록물관리 편람’에 문서제목, 생산자, 생산년월일, 분류번호로 이루어진 매우 간단한 목록형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요소가 빠져있거나 편성된 기록물마다 기술요소의 명칭조차 상이한 경우가 많다.

기록관에서는 매뉴스크립트만 별도로 검색할 수는 없으며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합 목록에서 매뉴스크립트 검색이 가능하다.³⁸⁾ 전자도서관에서는 도서나 매뉴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음악파일, 그림 동영상 등 학내 기관의 각

37) 서울대학교 기록관 웹페이지 <<http://archives.snu.ac.kr>>.

38) 강연아. 앞의 논문. p.37.



〈그림 12〉 서울대학교 기록관 검색화면

종 자료들을 웹상에서 전자적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다.³⁹⁾

소장 매뉴스크립트는 분류별, 시대별, 형태별, 가나다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분류별 검색의 경우 크게 학교사 관련 기록물, 학생운동 관련 기록물, 컬렉션(기타 기증기록)의 3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아래 총 9가지 하위 기록물 군⁴⁰⁾으로 분류되어 검색할 수 있다. 시대별 검색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캠퍼스종합화 이전(1975년 이전), 캠퍼스종합화 이후(1975년 이후), 2000년 이후로 나뉘어 검색된다. 형태별 검색은 문서(행정), 인쇄자료(도서), 사진·앨범, 마이크로자료, 팜플렛, 날

장자료, 음성자료, 기타 학생소품, 신문·스크랩, 문건, 영상기록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3〉과 같이 검색화면에는 제목, 생산년도, 분량, 자료유형의 기술요소가 입력되는 식별영역, 생산기관명, 생산자명이 입력되는 배경영역, 키워드명과 일반주기가 입력되는 내용 및 구조영역, 문서번호가 입력되는 이용영역과 원문을 볼 수 있는 수록매체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자치도서관이관 기록의 경우 내용 및 구조영역은 기술되지 않는 대신 관련기록군영역이 기술되어 관련기록물에 대해 하이퍼링크로 연계시켜주고 있다.

서울대는 MARC 데이터 모델의 한계점을 극

39) 전자도서관에서는 고문헌실자료, 근중자료, 기록자료, 농학자료, 대학사료, 디지털사진관, 대학신문, 미술작품, 음악작품, 의학자료, 학내간행물, 학술행사, 학위논문, 박물관, 규장각자료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이중 기록자료는 한국교육사고와 한국병합사고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며 대학사료는 기록관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검색을 제공한다.

40) 대학창설 및 국대안 기록, Crofts 기록, 서울대-미네소타 계획 관련 자료, 미군정청 기록, 서울대 50주년 기념행사 수집 기록, 임선웅 기증 기록, 박물관 이관 학생운동 기록, 자치도서관 이관 기록, 김진균 컬렉션.



〈그림 13〉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검색화면

복하고자, 더블린 코어를 기본 메타데이터 요소로 적용함으로써 의미적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더블린 코어를 이용해 기록물을 구축한 전자도서관의 탐색도구에서 메뉴 스크립트의 다계층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자도서관 메뉴스크립트 기술요소는 기증자정보, 기록생산부서, 원본 유무, 사료유형, 원자료소장처 등 메뉴스크립트를 대상으로 특화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5. 온라인 탐색도구의 발전방안

현재 대학기록관에서 제공되는 탐색도구는 기록물의 특성인 집합적 기술과 계층적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서와 같이 아이템수준의 기술만 반영하고 있다. 그 아이템수준의 기술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많

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내 대학기록관은 다양하고 정확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탐색도구는 이용자가 필요한 접근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검색어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대학기록관의 탐색도구는 기술요소와 기술정보가 부족하여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없다. 이는 기록물 관리 역사가 길지 않은 국내 대학기록관의 업무 우선순위가 탐색도구 개발보다는 수집과 보존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기록물 관리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대학기록관에서는 EAD 탐색도구의 개발 계획조차 없으며 EAD 탐색도구를 구축할 여건이 안되므로 EAD 탐색도구의 적용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점차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판단되는 EAD 탐색도구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EAD 탐색도구 구축이유는 첫째,

EAD 탐색도구는 기록물 계층과 집합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기록물 컬렉션 기술이나 시리즈 기술은 물론 개별 기록물 단위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 둘째, ISAD(G)를 반영한 EAD의 기술요소는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기록물 기술을 지원한다. 그래서 국내 대학기록관의 기록물마다 기술요소의 명칭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도 EAD 탐색도구를 구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며, EAD의 기술요소들을 검색어로 추출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EAD 탐색도구는 색인, 목록은 물론 원본내용을 수록하고 신속 정확한 열람과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녹음테이프, 사진물, 기록영화, 설계, 도면 등 시청각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색인·목록과 원본 이미지 내용을 수록하여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대에 맞게 정비된 대학기록물 탐색도구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기록물의 형태가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대학기록관에서 문서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특정 범위 내에서 검색하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탐색도구는 특정 기록물 군이나 기록물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관점에서 탐색도구의 개요, 검색방법, 검색구문을 설명하고 사용가능한 검색어의 예를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⁴¹⁾

그리고 검색방법 또한 단순검색과 상세검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부가적으로 브라우징 검색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순검색은

통합검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이용자가 키워드, 표제, 생산자 등 적용된 모든 기술요소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관련 검색결과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세검색은 검색이 가능한 기술요소들을 나열하고 원하는 기술요소의 검색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검색과 상세검색은 기술요소들을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물 군, 하위군, 시리즈, 파일, 아이টে으로 이어지는 계층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취소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계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2가지 이상의 계층을 선택하는 조합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디렉토리 검색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계층별 관련 리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물 군이나 하위군을 선택하면 관련 시리즈 리스트를, 시리즈를 선택하면 관련 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관련 아이টে까지 이용자가 원하는 단계까지 계층별 관련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검색 시 모든 기술요소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표제에 대한 검색항목에서 정확한 표제명 외에 표제에 포함된 단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 결 론

대학기록물의 이용제공을 위해 반드시 계획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탐색도구를 개발하는 일

41) 김익한 외. 앞의 보고서. pp.59-80.

이라 할 것이다. 탐색도구는 이용자가 기록물을 접하는 가장 처음 단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탐색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록물의 특성인 계층적 기술과 집합적 기술을 반영하고 기록관간 상호운용성을 가지는 EAD 탐색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국내외의 EAD 모범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국내 대학기록관의 탐색도구 도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연구에 의해 EAD 탐색도구 구축하여 기록물의 기술에 있어서도 컬렉션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를 기술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기술할 것인지, 어휘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술에 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실무지침을 개발하여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대학기록관의 상황에서는 예산 및 환경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서관의 DB를 활용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도 이용자 온라인 탐색도구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MARC을 이용해 DB를 구축하고 있다. MARC의 경우 EAD와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대학기록관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큰 방법이다. 물론

도서관의 DB구축형식은 기록물 기술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EAD를 적용한 탐색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사항이다.

기록관간, 국가간의 기술정보의 교환을 위해 탐색도구의 형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외국의 탐색도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소한 외형적 모양새나마 제대로 모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⁴²⁾ 기록물은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되며 생산기관의 조직이 빈번히 변화하기 때문에 전거시스템을 사용해야하고 이러한 전거시스템은 기록물의 기술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민주화자료관의 기술시스템과 전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탐색도구가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EAD 탐색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EAD를 확장하고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EAC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도구를 제공하는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1~2개 대학기록관을 시범 사이트로 선정하여 EAD 탐색도구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가 시도되어져 기록물에 대한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강소연. 2002. 「기록물 검색도구 전산화를 위한 EAD DTD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연아. 2006. 「대학 매뉴스크립트 검색도구 사례분석과 시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2) 노지현. 200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보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익한 외. 2002. 「민주화운동 사료관리시스템 개발방향 및 전략」.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노지현. 200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보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경. 2002. “EAD를 이용한 기록자료 자동화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93-106.
- 박지영. 2005. 「한국 대학기록관의 매뉴스크립트 운영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서명균 외.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관리 업무편람」.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서혜란. 2004.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기록학 연구」, 1: 7-22.
- 송민정. 2005. “기록물 검색도구를 위한 전거레코드 개발방안.” 「기록보존」, 18: 47-89.
- 신동희. 2003. “The Concept of Finding Aid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93.
- 오삼균 외. 2002.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XML 스키마 메타데이터 구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숙희. 2002. “기록관리기관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기초 연구.” 「제2회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술대회논문집」, 58-88.
- 이윤정. 2006.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선화. 2002. “전자문서포맷표준에 기반한 기록물관리시스템.” 「제2회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술대회논문집」, 124-143.
- 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최정태 외. 2005. 「기록관리학사전」. 서울: 한울.
- Dooley, Jackie M. 1997. “Introduction-Encoded archival description: Context and Theory.” *The American Archivist*, 60(3): 264-265.
- Johnston, Dorothy 2001. “From Typescript Finding Aids to EAD: a university case stud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 39-52.
- Kiesling, Kris. 1997. “EAD as an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 *The American Archivist*, 60(3): 344-354.
- Mi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 Pitty, Daniel V. 1997.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The Development of an Encoding Standard for Archival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0(3): 275-278.